

가족연구를 위한 혼합방법론에 대한 고찰*

An Inquiry about Mixed Methodology for Family Studies*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조교수 양 성 은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Yang, Sungeun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혼합방법연구에 대한 이해 |
| II. 혼합방법연구의 철학적
패러다임 : 실용주의 | IV. 맺음말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present article are to suggest pragmatism as offering a philosophical paradigm for mixed methods research, to explai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ixed methodology, and to present examples of research for understanding how to apply it to family studies. Mixed methods research is the class of research where the researcher mixes or combin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chniques, methods, approaches, concepts or language into a single study. Mixed methodology has its roots in pragmatism, which is a new philosophical paradigm to criticize the traditional dualism and to endorse eclecticism and pluralism. The present article argues that mixed methods research has the potential to answer a broader and more complete range of research questions, and to provide strong evidence for a conclusion through convergence and corroboration of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methods.

주제어(Key Words): 혼합방법연구(mixed methods research), 실용주의(pragmatism)

I. 들어가는 말

가족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이론을 수립해야하며, 동시에 그 이론적 산물을 생산해내는데 적합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구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서구에서는 양적방법론의 근간이 되는 실증주의과학(positivistic science)과 질적방법론의 뿌리가 되는 해석주의과학(interpretive science) 간의 패러다임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패러다임의 대립 가운데서도 질적 및 양적연구자 모두로부터 다양한 질적 및 양적방법을

Corresponding author: Sungeun Yang,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Korea. Tel: 82-62-230-6784 Email: seyang@mail.chosun.ac.kr

* 이 논문은 200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sun University, 2006).

함께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Campbell & Stanley, 1963; Glaser & Strauss, 1967).

연구방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혼합방법연구(mixed methods research, Creswell, 2003: 114)의 형태로 구체화 되었는데, 혼합방법연구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및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 자료수집법, 자료분석법 등을 결합 또는 통합하는 것이다. 혼합방법연구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두 가지 방법론이 모두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며(Hasse & Myers, 1988), 복잡한 현상을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필요하고(Clarke & Yaros, 1988), 방법이란 결국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Casebeer & Verhoef, 1997)고 주장한다. 특히 Patton(2002)은 실증주의 과학의 양적연구와 해석주의과학의 질적연구 간의 방법론 논쟁이 이미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연구방법의 적합성, 실용성, 상호존중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방법론적 순수성, 정통성, 우월성을 고집하는 논쟁자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Johnson과 Onwuegbuzie(2004)은 자신들의 논문제목을 “혼합방법연구: 전성기를 맞이한 연구패러다임(Mixed methods research: A research paradigm whose time has come)”으로 정하고, 사회과학에서 혼합방법연구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서구에서 혼합방법연구가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학계의 관심은 어떠한가? 본 연구자는 가족학 관련 주요학술지의 논문을 조사하여 우리 가족학계에서 혼합방법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중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가족과 문화, 가족관계학회지를 가족학 관련 주요학술지로 선정하고,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1월~2005년 8월까지 약 5년 8개월 간 출간된 권(호)을 살펴보았다. 먼저, 4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연구들을 논문제목과 주제어(key words)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가족관련 연구를 선정하고, 다음 단계로 연구방법을 명백히 한 논문을 재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를 중심으로 가족연구방법의 경향을 요약해보면, 최근까지 가족학 분야는 통계기법에 치중된 양적연구에 편향되어 있으며 질적연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천혜정, 2004). 본 조사에서 “질적 연구(예: 노영주, 2001)”라는 용어를 논문제목에 기재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현상학(예: 양성은, 2005),” “해석학적 현상학(예: 김태현, 노치영, 2003),” “내용분석(예: 이강이, 최혜영, 2004),” “생애사분석(예: 강유진, 한경혜, 2002)” 등을 밝힌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분석의 단위로서 가족구

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체계이론이 주목받으면서(유계숙, 최연실, 성미애, 1993: 277), 우리 학계에도 질적연구방법의 장점이 부각되는데 기인한다고 보겠다. 한편, “혼합방법” 또는 “혼합연구”를 논문제목이나 주제로 기재한 가족학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Creswell(2005)은 혼합방법을 사용한 경우 논문제목에 이를 명백히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지만, 논문제목에 방법론을 구체화 하지 않는 국내 학계의 관행이 본 조사결과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방법론의 철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단일연구에서 실시한 국내 가족논문은 아직까지 발견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우리 가족학 분야에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간의 방법론 성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제 3의 패러다임인 실용주의(pragmatism) 관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혼합방법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혼합방법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체 연구과정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혼합방법연구의 철학적 패러다임: 실용주의

실증주의과학과 해석주의과학 간의 패러다임 논쟁 속에서 연구방법의 혼합에 대한 필요성은 질적연구자와 양적연구자 모두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실험설계의 대표적 학자인 Campbell(Campbell & Stanley, 1963)이나 근거이론의 창시자인 Glaser와 Strauss(1967) 같은 질적연구자들, 그 밖에도 가족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 분야의 방법론자들(Bryman, 1998; Firestone, 1990; Morse, 1991)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그 이유로는 연구진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측면 외에 연구방법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복잡한 현실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Patton, 2002: 69). 연구방법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패러다임을 중요시하는 일부 질적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가정(假定)을 바탕으로 하는 두 연구방법 간의 조화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즉, 패러다임에서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론자들은 객관적 실재(reality)를 추구하는 실증주의과학의 양적방법과 주관적 해석에 근거한 해석주의과학의 질적연구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Guba와 Lincoln(1989)은 각각의 연구

방법을 그 배후에 있는 고유한 존재론(ontology), 인식론(epistemology), 가치론(axiology)으로부터 분리시켜 상이한 철학적 가정을 무시한 채 혼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은 실재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를 묻는 존재론,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가 독립적인지 상호적인지를 묻는 인식론, 그리고 연구자의 가치중립성과 가치지향성을 묻는 가치론 등의 철학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방법의 선택은 부차적인 것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철학적 가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순수론자에 대해 Patton(1988)은 “선택가능한 패러다임(paradigm of choices)”을 주창하였다. 이는 패러다임이란 결코 경직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연구자가 반드시 패러다임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Patton은 “패러다임 간의 경쟁은 이것 또는 저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릇된 암시를 준다. 질적접근과 양적접근이 함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1988: 117)”고 단언했다. Hassard(1993) 역시 “패러다임에 대한 이단(paradigm heterodoxy: 110)”이 가져오는 장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Creswell(2003)은 질적접근과 양적접근을 양분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며, 연구자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모두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Miles와 Huberman(1984)도 인식론적 순수성(epistemological purity)만으로는 연구를 완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numbers)와 단어(words)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Denzin과 Lincoln(2000)도 세상을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려하거나 특정 원리만을 고집하는 데서 벗어나 다양성이 강조되는 “해방의 시대”를 맞이해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용적 입장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강경한 순수론자들도 점차 두 경쟁적 패러다임의 논쟁 보다는 인간현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 이해를 위해 혼합방법론자들과 타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결국 단일한 연구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은 복잡한 인간현상의 이해에 불충분하다는 자각과 함께 변증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의 조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논리적 근거는 실용주의과학(pragmatic science)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실증주의과학이나 해석주의과학의 패러다임과 구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Creswell, 2003).

실용주의는 좁은 의미로는 Charles Pierce, William James, John Dewey 등에 의해 전개된 의미, 진리, 선에 관한 철학적 이론으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

든 탐구를 실천과 연관시켜 수행하는 학문적 태도를 의미한다. 실용주의의 대부인 William James(1962: 183)는 최종적인 것, 성과물, 결과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실용주의로 규정하는 바 있다. 실용주의는 철학적 교조주의(dogmatism)와 회의주의(skepticism)의 중간에 위치하며, 전통적인 이원론(dualism) 논쟁을 거부하고 절충주의(eclecticism)와 다원주의(pluralism)를 받아들인다. 즉, 합리주의나 경험주의나(rationalism vs. empiricism), 현실주의나 반현실주의나(realism vs. antirealism), 사실이나 가치나(facts vs. values), 주관성이나 객관성이나(subjectivism vs. objectivism) 등의 이분법을 배격한다. 실용주의가 중요시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이며, 그렇기에 이론의 가치도 “얼마나 현실에 적용가능한가”하는 도구적 관점으로 판단된다. 반철학적이거나 불리올만큼 이론의 실천가능성을 강조하며, 가치지향적이고, 철저한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되 환원주의(reductionism)를 배격한다. 실용주의에서 지식이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에 기반을 두는 동시에 구성되어지는(constructed) 것으로 정의된다.

실용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혼합방법연구가 추구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방법이나 양적방법의 우수성에 대한 논쟁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귀납적인 논리만을 주장하거나 연역적인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유용한 지식을 만들어 내는데 역부족이며, 귀납과 연역의 추론을 병행함으로써 실용적이고 보다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식론적으로도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인식 주체와 객체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연구자가 연구문제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고찰할 필요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성이 연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결과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치중립과 가치구속(value-laden)의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지양해야한다. 이처럼 실용주의과학의 패러다임을 인정함으로써 두 연구방법의 패러다임 충돌이라는 난해한 딜레마를 해결하고 나면, 그 이후의 통합과정은 보다 수월해진다(Allen-Meaers, 1995; Stern, 1994).

Ⅲ. 혼합방법연구에 대한 이해

1. 혼합방법연구의 정의

혼합방법연구는 연구자가 단일연구를 수행하면서 질적 및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점, 방법, 전략, 개념 및 언어를

혼합 또는 결합하는 것이다(Johnson & Onwuegbuzie, 2004: 17). Johnson과 Onwuegbuzie(2004: 24)은 사실 혼합방법연구 대신 통합연구(integrative researc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는데, 통합연구라는 용어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인식론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reswell(2003)은 혼합방법연구를 단일연구 또는 일련의 연구들(series of studies)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및 양적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Morse(2005)는 혼합방법연구를 복합방법연구(multimethod research)와 구분하면서, 단일연구의 진행 중간에 질적 및 양적방법이 혼합되어 하나의 결과를 얻는 것이 혼합방법연구라면 복합방법연구는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통해 산출된 각각의 결과를 마지막 단계에서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혼합방법, 통합방법, 복합방법 등의 용어적 혼란이 산재하고, 그 개념상에도 단일연구 안에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를 통합한 것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방법연구를 단일연구 안에 행해진 질적 및 양적연구방법의 결합으로 개념화 하고자 한다.

2. 혼합방법연구의 특성

혼합방법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는 체계 이론의 대명제처럼,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합함으로써 나타나는 상승효과(synergy)를 기대한다. 연구하는 현상에 대해 결과의 단순 합산을 뛰어넘는 심층적 통찰, 보다 폭넓은 관점의 수용, 연구의 유연성 및 타당성 향상이 혼합방법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의 통합은 관심 현상 자체와 그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한 연계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이고 완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Green, 1994).

Green, Caracelli, Graham(1989)은 혼합방법연구를 수행하는 5가지 주요 목적을 설명하였다. 첫째, 삼각기법(triangulation)의 목적으로서, 동일한 현상을 상이한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한 후 그 결과들을 수렴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점검하여 상호확증을 얻기 위함이다. 둘째, 상보성(complementarity)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질적 및 양적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어느 한쪽에서 간과한 점을 보충하고 보강하기 위함이다. 셋째, 새로운 관점을 제시(initiation)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이한 연구방법으로부터 얻은 결과 속에서 역설과 상호대립을 찾아내

서 연구문제를 새롭게 재구조화할 수 있다. 넷째, 발전적 측면(development)으로서,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행된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가 후속 연구방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다섯째, 확장(expansion)을 목적으로 하는데, 상이한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혼합연구방법의 장점과 함께 그 한계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합하는 것은 연구과정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철학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그리고 논문작성 등에 이르는 과정 중 어떤 부분에서 질적 및 양적연구방법이 융합될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서, 실제로 단독 연구자가 혼합방법연구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연구설계의 경우, 다수의 연구자가 팀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이로 인해 혼합방법연구를 수행하려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게 된다. 또한 혼합방법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질적 및 양적방법론 모두에 전문성을 갖춰야하며, 패러다임에서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론자들로부터 방법론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한다.

3. 혼합방법연구의 유형

혼합방법연구는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통합에 있어 (1) 시간적으로 어떠한 연구방법을 먼저 실시하는가(timing)와 (2)어떠한 방법에 보다 중점을 두는가(emphasis)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표 1>은 Johnson과 Onwuegbuzie(2004)의 기준을 참고로 혼합방법연구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연구유형에서 QUAL(Qualitative)은 질적연구를, QUAN(Quantitative)은 양적연구를 의미한다. 혼합방법연구의 유형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시간적 순서로서, 두 가지 연구방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화살표(→)로 표시하고 동시에 진행된 경우는 덧셈기호(+)로 표시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질적방법과 양적방법 중 어느 쪽에 더 비

<표 1> 혼합방법연구의 유형

		연구방법의 시간적 순서	
		동시적 진행	순차적 진행
연구방법의 중점 여부	동등한 진행	QUAL + QUAN	QUAL → QUAN QUAN → QUAL
	중점적 진행	QUAL + quan	QUAL → quan quan → QUAL
QUAN + qual		QUAN → qual qual → QUAN	

중을 두는가 하는 점이다. 동등한 비중을 둔 경우(equal status)와 어느 한쪽에 더 비중을 두어 진행하는 경우(dominant status)로 나눌 수 있다. 어느 연구방법을 주(主)로 하고 어느 것을 보조로 하느냐에 따라 대문자(QUAN, QUAL)로 쓴 것은 중점적인 연구방법이고, 소문자(qual, quan)로 표시한 것이 보조적 연구방법이다.

Creswell(2005) 역시 혼합방법연구의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였다. Creswell은 특별히 혼합방법설계(mixed method design)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연구방법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적, 탐색적, 삼각혼합설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설명적 혼합연구설계(explanatory mixed methods design)는 “양적→질적방식(QUAN→QUAL, QUAN→qual, quan→QUAL)”으로서, 양적연구방법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가설-연역적인(hypothetical-deductive) 양적연구의 패러다임으로부터 특정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적인 질적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끌어내기 위해 시도된다.

둘째, 탐색적 혼합연구설계(exploratory mixed methods design)는 “질적→양적방식(QUAL→QUAN, QUAL→quan, qual→QUAN)”으로서, 면접이나 관찰 등의 질적자료 수집을 통해 특정 개념이나 잠재적 가설을 먼저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조작화 및 가설검증 위주의 양적연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설계는 다항목적도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삼각 혼합연구설계(triangulation mixed methods design)는 “질적+양적방식(QUAN+QUAL, QUAL+quan, QUAN+qual)”으로서, 두 가지 연구방법을 동일한 시점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설계는 한 가지 연구방법을 먼저 실시하여 자료수집과 분석을 마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방법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반면, 삼각혼합연구설계는 질적 및 양적자료를 동일한 시점에서 수집한 후 각각의 자료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구유형 분류는 혼합방법연구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반드시 앞서 제시한 유형 중 어느 하나로 혼합방법연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연구문제나 연구현장의 상황, 그리고 연구자의 창의성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의 혼합연구가 가능하다. 예로서, 네스티드 혼합연구설계(nested mixed methods design)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양적→질적→양적방식(QUAN→qual→QUAN)”으로 진행되며 주로 프로그램이나 실험의 중재효과를 보는 사전-사후비교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다(Creswell, 2005). 연구대상에게 사

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양적자료를 수집하되 프로그램이나 실험을 실시하는 중간에 심층면접이나 관찰을 통해 질적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전체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다.

4. 혼합방법을 사용한 연구과정의 개념화

서구 학계에서는 “보다 폭넓고 심도 깊게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합방법연구가 유용하다(Shepard, Orsi, Mahon, & Carroll, 2002: 337)”는 자각과 함께 가족연구에 있어 혼합방법의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복지학계에서 문성호(1997)나 김동배와 이희연(2003) 같은 학자들이 혼합방법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내 논문은 혼합방법을 이론적으로 옹호하는데 그침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본장에서는 실제 연구사례를 통해 혼합방법연구의 과정을 개념화하고,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사례는 만성질환자 자녀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Shepard(1992)의 연구와 자녀가 완화치료(palliative care)를 받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Carroll(1997)의 연구이다. 두 연구사례에 대한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혼합방법연구의 첫 번째 사례로서 Shepard(1992)의 연구를 주목하고자 한다. Shepard는 만성질환자녀를 돌보는 가족에 관한 기존문헌들이 간병 스트레스, 자원의 부족, 죄책감이나 사회적 낙인 등 주로 이들 가족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다룬 점을 비판하면서 강점(strength)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Shepard는 양적방법에 중점을 둔 동시적 혼합방법연구(QUAN+qual)를 계획하고, 이들 가족이 자녀의 만성질환이라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만성질환자녀(6-12세)가 있는 61가족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양적연구과정에서 부모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고 질적연구과정에서 부부 동시면접(couple interview)이 이루어졌다.

혼합방법연구를 통해 획득한 점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Shepard는 양적연구과정을 통해 기존의 가족대처행동이론(theory of family coping)에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함과 동시에 질적연구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가족의 주관적 인식(perception)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켰다. 즉, 구조화된 척도를 이용해 만성질환자녀와 관련된 가족의 스트레스, 자원, 대처행동 등을 수량화 하는 한편, 부부면접을 통해 “자녀의 질환이 가족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친밀감을 증가시켰다”는 상황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가족에 대해 양적연구방법만을

〈표 2〉 혼합방법연구사례의 비교분석

		Shepard(1992)	Carroll(1997)
연구목적		혼합방법연구를 통해 만성질환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대처 행동에 관해 연구하고자 함.	혼합방법연구를 통해 자녀가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의 기능변화와 주요 쟁점을 시간경과에 따라 연구하고자 함.
연구대상/연구참여자		만성질환자녀가 있는 61가족을 대상으로, 부모를 연구에 참여시킴.	말기질환으로 가정 내에서 완화치료 중인 아동의 가족구성원(10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킴.
연구과정	유형	QUAN + qual	quan + QUAL
	양적 연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실시. • 척도 종류 Functional Status Measure Impact on Family Scale Family Assessment Device Child Behavior Check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망 전후에 구조화된 질문지 실시. • 척도 종류 Feetham Family Functioning Scale Brief Symptom Inventory
연구과정	질적 연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동시면접 실시. • 심층면접의 주요내용 - 만성질환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은 무엇인가? - 만성질환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강점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에게 개별면접 실시. • 사전-사후 심층면접 완화치료 중 면접 + 자녀 사망 후 면접 • 심층면접의 주요내용 - 완화치료과정 및 자녀사망 후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 완화치료과정 및 자녀사망 후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양적 및 질적연구과정을 통해 만성질환자녀를 돌보는 가족은 구성원 간에 상호친밀성 강화를 경험한다는 결과 도출. 한편, 이들 가족의 스트레스로서 현재 겪고 있는 자녀의 기능장애 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해 자녀의 발달과업이 달성되지 못할까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힘.	양적 및 질적연구과정을 통해 완화치료를 받는 자녀가 있는 가족은 (a) 심리적 스트레스, (b) 친구와의 관계, (c) 완화치료전문가와와의 관계 등의 쟁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가족은 간병과정에서 우울과 절망을 경험하며,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완화치료전문가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지만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시한 기존연구와 달리, 만성질환자녀를 간병하는 부모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구조화된 척도가 간과한 점을 보충하였다. Shepard의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은 질환으로 인해 자녀가 현재 기능장애를 겪는 것이 힘들지만, 질환이 자녀의 미래 발달과업(예: 결혼, 출산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토로하였다. 혼합방법 연구를 통한 상보성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Shepard의 연구는 단일한 연구방법만을 사용했을 때 간과할 수 있는 점을 보충하여 만성질환자녀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통합적인 결과를 산출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혼합방법연구의 두 번째 사례로서, Carroll(1997)은 자녀가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대상의 희소성으로 인해 모두 10가족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자녀가 말기질환으로 더 이상 병원치료가 무의미한 상태에서 가정 내 완화치료를 받고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말기 질환자녀의 사망을 전후하여 가족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가족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혼합방법연구를 통해 탐색하는데 있었다. Carroll은 질적방법에 중점을 둔 동시적 혼합방법 연구(quan+QUAL)를 계획하여, 양적연구과정에서 부모 및 간병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고 질적연구과정에서 개별면접(individual interview)을 실시하였

다. 자료수집은 일차적으로 자녀가 완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자녀가 사망한 후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말기질환자녀의 사망을 전후하여 가족이 경험하는 3가지 쟁점을 구체화 했는데, 이는 완화치료를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완화치료전문가와 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완화치료를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연구참여자 가족은 구조화된 척도를 통해 평균이상의 우울성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 중심주제(theme)로서 상호확증이 가능했다. 혼합방법의 사용은 상호확증뿐 아니라 단일한 방법만을 사용할 때 간과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arroll의 연구참여자 가족은 입원치료를 중단하고 가정내 완화치료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우울과 절망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 질적연구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말기 질환자녀의 사망을 전후하여 가족은 친구집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는 이들이 친구집단과의 친밀감을 원하지만 실제로 이를 얻기는 어렵다는 중심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는 구조화된 척도를 통해 친구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지원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와 상호 비교 되었다. 끝으로, 말기질환자녀를 돌보는 가족은 완화치

료전문가에게 양가감정을 가지지만 이들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밝혔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이러한 중심주제는 양적연구과정을 통해 완화치료전문가와 어느 정도 시간을, 얼마나 자주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수량화 되어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Carroll은 질적 및 양적방법을 통합함으로써 상호회증과 상보성을 획득하여 혼합방법연구의 장점을 부각시켰다고 하였다.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가족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실용주의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혼합방법연구를 제안하였다. 혼합방법연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개념화는 실용주의라는 철학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연구방법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연구사례를 제시하여 혼합방법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으며, 어떠한 장점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서구 학계에서는 해석주의과학의 질적방법론과 실증주의과학의 양적방법론 간의 패러다임 논쟁이 점차 연구방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우리 가족학계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각 방법론에 대한 경쟁적 분석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학문의 발전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서구 학계가 앞서 경험한 패러다임 간의 상호대립을 우리 학계는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실용주의에 대한 성찰은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방법론 논의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혼합방법연구는 하나의 건설적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증학문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용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혼합방법연구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며, 연구결과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가치를 둔다. 이러한 실용주의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하는 혼합방법연구를 통해 가족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현실에 뿌리를 두고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강유진, 한경혜(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인생전환점, 삶의 맥락, 적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권성복, 이미라(1987). 중환자 가족의 요인분석 요구. *간호학회지*, 17(2), 122-135.

김동배, 이희연(2003). 사회복지실천의 생태체계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I). *연세사회복지연구*, 9, 27-58.

김태현, 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8), 1-17.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4.

문성호(1997). 사회사업실천의 연구방법에 관한 논쟁: 통합적 접근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33, 144-161.

양성은(2005). 고3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49-61.

유계숙, 최연실, 성미애(번역)(1993). *가족학이론*. 서울: 문음사.

이강이, 최혜영(2004).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이혼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1), 47-60.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적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61-173.

Allen-Meares, P. (1995). Applic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Let the work begin. *Social Work Research*, 19, 5-8.

Brewer, J., & Hunter, A. (1989). *Multimethod research: A synthesis of styles*. Newbury park, Ca: Sage.

Bryman, A. (1998).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research*. London: Allen and Unwin Inc.

Campbell, D. T., & Stanley, J. C. (1963).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Boston: Houghton-Mifflin.

Carroll, R. M. (1997). Families functioning during and after palliative care of a child.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ief and Bereavement in Contemporary Society, Washington, DC.

Casebeer, A. L., & Verhoef, M. J. (1997).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for enhancing the study of chronic diseases. *Chronic Diseases in Canada*, 18, 130-135.

Clarke, P. N., & Yaros, P. S. (1988). Research blenders: Commentary and response. *Nursing Science Quarterly*, 1, 147-149.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2005). International Qualitative Research Workshop, 2005. 2. 17-2. 19. Edmonton, Canada.
- Denzin, N. K., & Lincoln, Y. S. (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Firestone, W. A. (1990). Accommodation: Toward a paradigm-praxis dialectic. In E. G. Guba(Ed.), *The paradigm dialog* (pp. 105-124). Newbury Park, CA: Sage.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Green, J. C. (1994). Qualitative paradigm evaluation. In N. 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530-544). Thousand Oaks, CA: Sage.
- Green, J. C., Caracelli, V. J., & Graham, W. F. (198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 method evaluations. *Education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 255-274.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assard, J. (1993). *Sociology and organization theory: Positivism, paradigms and postmodern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se, J. E., & Myers, S. T. (1988). Reconciling paradigm assumption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0, 128-137.
- James, W. (1962). What pragmatism means. In W. Barrett, & H. Aikin(Eds.).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 Johnson, R. B., & Onwuegbuzie, A. J. (2004). Mixed methods research: A research paradigm whose time has come. *Educational Researcher*, 33(7), 14-26.
- Johnston, P. L. (2004). Mixed methods, mixed methodology health service research in practic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4(2), 259-271.
- Miles, M. & Huberman, A. (1984). Drawing valid meaning from qualitative data: Toward a shared craft. *Educational Researcher*, 13, 20-30.
- Morse, J. M. (1991).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Newbury Park: Sage.
- Morse, J. M. (2005). 한국질적연구센터 워크샵 "Ethnography and issues in mix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design." 2005. 9. 2.- 9. 4.
- Patton, M. Q. (1988). Paradigm and pragmatism. In D. M. Fetterman(Ed.), *Qualitative approaches to evaluation in education: The silent scientific revolution* (pp. 116-137). New York: Praeger.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Shepard, M. P. (1992). Identification of the family system responses to the perceived impact of chronic illness which promote adaptation in a child with a chronic illn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hepard, M. P., Orsi, A. J., Mahon, M. M., & Carroll, R. M. (2002). Mixed-methods research with vulnerable famil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8(4), 334-352.
- Stern, S. B. (1994). Commentary: Wanted! Social work practice evaluation and research-all methods considered. In E. Sherman & W. J. Reid(Eds.),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pp. 485-49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ashakkori, A., & Teddlie, C. (1998). *Mixed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2005년 12월 7일 접수, 2006년 4월 4일 채택)